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 요르단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 계절이 한 창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맑은 가을 계절과는 다르게 요즘 나오는 뉴스에 마음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태에 요르단 또한 몇 주 긴장된 분위기 속에 옆 나라 소식에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요르단은 인구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인척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살고 있고 서로 교류하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지역 주민들과 센터장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격분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여동생은 치료차 요르단에 방문했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두고 온 아이들과 남편 걱정이 크고 전기가 끊기면서 통신도 끊겨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말마다 구시가지와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에 앞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대 규모 집회도 열리곤 했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도 이스라엘을 혼내주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갑작스런 말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갈등과 전쟁이 길어 질 수 있다는 다수전문가의 예측이 다가오는 겨울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 사태에 대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대규모 이스라엘 규탄집회)

기도 제목

1.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이 조속히 평화롭게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가자 지구 안에 있는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가자 지구 안에 있는 가족들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저희 지역 주민들과 센터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저희 가정의 비자 연장과 아이들 학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